No. 18 기업 실적 분석 읽는 시간 13분

삼성전자 3분기 실적, SK하이닉스·TSMC·마이크론·엔비디아와 비교하면 무엇이 다를까?

삼성전자의 2026년 3분기 영업이익 107.4조 원을 SK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엔비디아의 최근 분기 실적과 비교합니다. 통화가 달라 금액 대신 영업이익률과 증가율로 견주고, 사업 구조·기저효과·분기 기간·일회성 이익·호황기 PER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를 풀어 봅니다.

한 줄 결론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률은 55.0%(직접 계산)로 SK하이닉스 80%, 마이크론 80.7%보다 낮지만 반도체(DS)만 보면 72.4%(직접 계산)이며, 다섯 회사의 차이는 사업 구조·기저효과·분기 기간·일회성 이익에서 나옴

확인할 숫자

영업이익률, 부문별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분기 기간, 일회성 이익, 다음 분기 가이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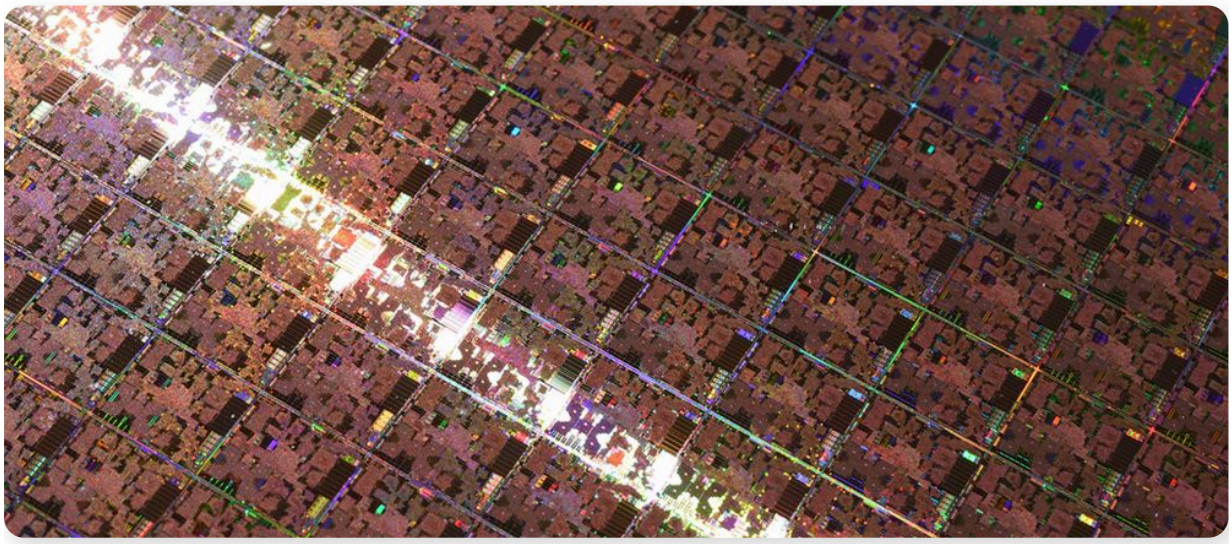


사진: 반도체 웨이퍼 위에 빼곡히 배열된 칩 확대 사진, maticulous, Flickr.

목차

1.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4조 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2. 다섯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나란히 놓으면 누가 가장 높을까?
3. 삼성전자의 이익률은 왜 SK하이닉스보다 낮게 나올까?
4. 전년 대비 증가율은 왜 마이크론이 1,097%이고 TSMC는 75%일까?
5. 같은 「최근 분기」인데 기간은 왜 서로 다를까?
6.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순이익이 줄어든 회사는 왜 그럴까?
7. 이익이 이렇게 큰데 PER이 낮으면 싼 주식일까?
8. 회사들은 다음 분기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
9. 실적 비교 기사를 볼 때 던질 다섯 가지 질문

> 이 글은 각 회사가 공식 발표한 분기 실적을 비교한 정보 글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나 목표주가, 주가 예측이 아닙니다. PER을 설명하는 회사 H는 가상의 회사입니다.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삼성전자가 2026년 10월 29일에 발표한 3분기 실적에 처음 등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보고 있으면 얼마나 큰지, 다른 반도체 회사보다 잘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실적 뉴스를 읽다가 「그래서 SK하이닉스나 엔비디아보다 나은 건가」 하고 궁금했던 분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다섯 회사를 어떤 자로 재야 공정할까요? 통화가 원, 대만달러, 달러로 제각각이므로 금액 대신 비율로 견주어 보겠습니다.

01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4조 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삼성전자의 2026년 3분기 연결 매출은 195.3조 원, 영업이익은 107.4조 원입니다(회사 보도자료, 2026.10.29). 매출은 전 분기보다 14% 늘어 분기 사상 최대였고, 회사는 글로벌 기술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익의 출처는 한 곳입니다. 반도체를 맡는 DS 부문이 매출 147.1조 원, 영업이익 106.5조 원을 냈습니다. 전사 영업이익의 99.2%입니다(직접 계산, 106.5÷107.4). 회사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인 HBM4의 판매가 크게 늘어 메모리가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TV·가전을 맡는 DX 부문은 0.8조 원 영업적자였고, 삼성디스플레이는 1.1조 원 영업이익이었습니다.



그림 1. 삼성전자 2026년 3분기 부문별 영업이익(회사 보도자료 2026.10.29). 주요 부문만 그려서 합계는 전사 107.4조 원과 일치하지 않음.

이처럼 이번 기록은 「삼성전자 전체」가 아니라 사실상 반도체 한 부문이 만든 숫자입니다. 이 점이 뒤에 나올 비교의 출발점이 됩니다.

02

다섯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나란히 놓으면 누가 가장 높을까?

영업이익률은 매출 100원에서 영업이익이 몇 원 남는지를 뜻합니다. 통화가 달라도 그대로 비교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발표문에 영업이익률을 적지 않아 직접 계산했습니다. 107.4÷195.3으로 55.0%입니다.

다른 회사는 어떨까요? SK하이닉스는 80%(경영실적 2026.10.28), 마이크론은 80.7%(8-K 2026.9.30), TSMC는 58.7%(6-K 2026.10.15)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영업이익 637.34억 달러를 매출 962.21억 달러로 나누면 66.2%입니다(직접 계산, 8-K 2026.8.26).

순서가 뜻밖입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삼성전자가 전사 기준으로는 다섯 회사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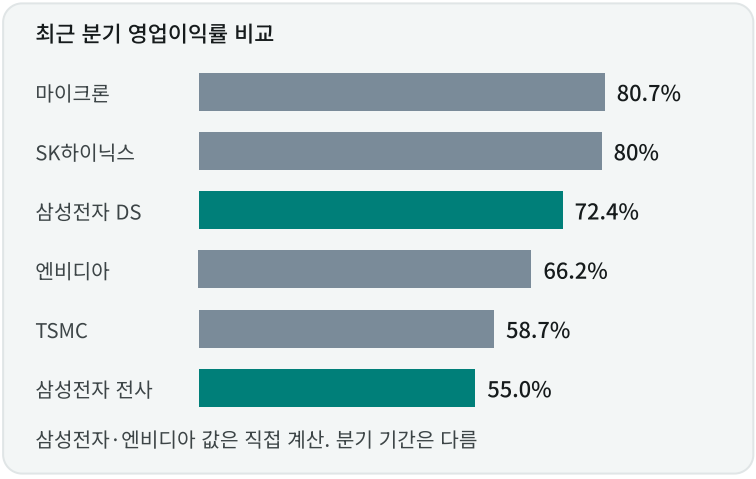


그림 2. 각 회사 최근 분기 영업이익률. 삼성전자 전사 55.0%, DS 72.4%, 엔비디아 66.2%는 직접 계산한 값이고 나머지는 회사 발표 값임. 막대 길이는 비율에 비례함.

다만 삼성전자의 DS 부문만 떼어 보면 106.5÷147.1로 72.4%입니다(직접 계산). 같은 회사인데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17.4%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이익률의 순위는 실력의 순위라기보다 「무엇을 파는 회사인가」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03

삼성전자의 이익률은 왜 SK하이닉스보다 낮게 나올까?

첫 번째 이유는 사업 구조입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가 본업인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옆에 스마트폰, TV, 가전, 디스플레이를 함께 둡니다.

3분기에 스마트폰·네트워크(MX·네트워크)는 매출 37.7조 원에 영업적자 0.6조 원, TV·가전(VD·DA)은 매출 13.9조 원에 영업적자 0.2조 원이었습니다. 둘을 더한 DX 매출은 51.6조 원입니다(직접 계산). 이익은 내지 못하면서 분모인 매출만 키웠으니 전사 이익률이 내려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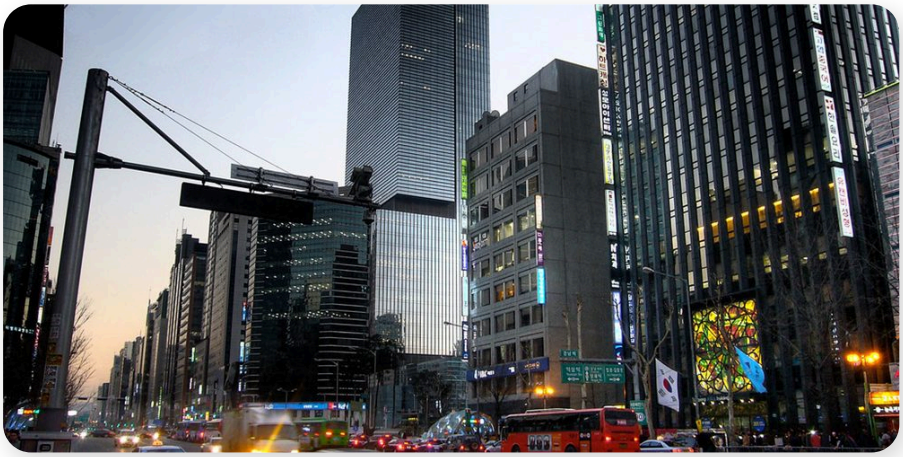


사진: 해 질 녘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과 도로, JoopDorresteijn, Fli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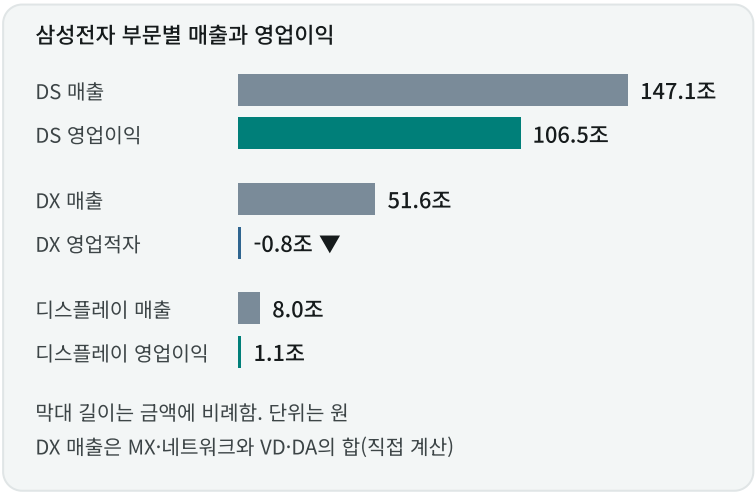


그림 3. 삼성전자 2026년 3분기 부문별 매출과 영업이익(회사 보도자료). DS는 매출의 72.4%가 영업이익으로 남았고 DX는 매출 51.6조 원에 적자였음.

참고로 부문 매출을 단순히 더하면 206.7조 원으로 전사 매출 195.3조 원보다 큽니다(직접 계산). 발표문에서 차이의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그렇다면 DS만 떼어 본 72.4%는 왜 SK하이닉스의 80%보다 낮을까요? DS 안에는 메모리 말고 다른 회사의 칩을 대신 만들어 주는 파운드리(위탁생산)도 들어 있습니다. 회사는 파운드리가 HBM 베이스다이와 선단 공정 매출로 개선됐다고만 밝혔고 파운드리의 이익은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끼리의 정확한 비교는 이 자료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확인 필요]

이처럼 한 회사의 이익률은 여러 사업의 평균입니다. 평균이 낮다고 주력 사업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04

전년 대비 증가율은 왜 마이크론이 1,097%이고 TSMC는 75%일까?

이번에는 증가율입니다.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분기보다 얼마나 늘었는지 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은 36.54억 달러에서 437.51억 달러로 1,097.3% 늘었습니다(직접 계산). SK하이닉스는 632%, 엔비디아는 124%, TSMC는 75.0%입니다(각 회사 발표).

삼성전자는 발표문에 증가율이 없습니다. 언론 보도로는 전년 동기 대비 783.1%, 전 분기 대비 20% 증가입니다. [확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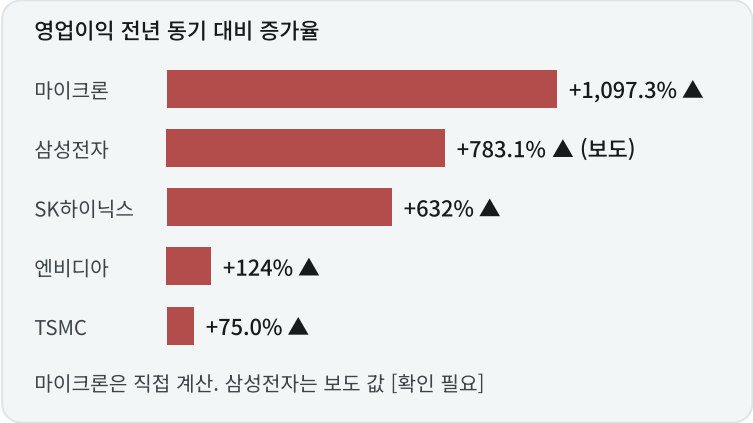


그림 4. 최근 분기 영업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막대 길이는 증가율에 비례함. 삼성전자 값은 회사 발표문이 아닌 보도 값이라 [확인 필요].

증가율만 보면 메모리 회사가 엔비디아와 TSMC를 압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증가율은 출발점이 낮을수록 커집니다. 이것을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쉬운 예로 작년에 100원 벌던 가게가 올해 1,000원을 벌면 900% 증가이고, 작년에 600원 벌던 가게가 올해 1,000원을 벌면 67% 증가입니다. 올해 번 돈은 같습니다.

실제로 1년 전 영업이익률을 보면 마이크론은 32.3%, SK하이닉스는 47%였습니다. 엔비디아는 1년 전에도 60.8%였습니다(직접 계산, 284.40÷467.43). 엔비디아는 이미 높은 곳에서 출발했고, 메모리 회사는 낮은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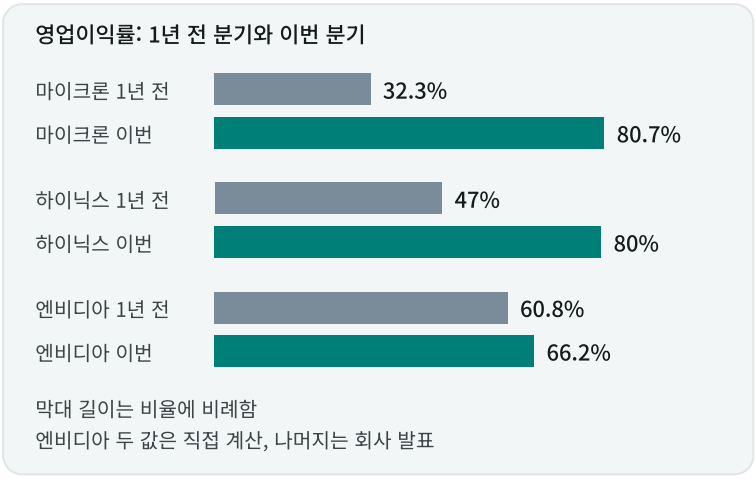


그림 5. 1년 전 같은 분기와 이번 분기의 영업이익률. 메모리 두 회사는 출발점이 낮았고 엔비디아는 이미 높았음.

이처럼 증가율이 크다는 것은 「지금 잘 번다」와 「1년 전에 못 벌었다」가 함께 담긴 숫자입니다. 증가율을 볼 때는 1년 전 숫자를 같이 봐야 합니다.

05

같은 「최근 분기」인데 기간은 왜 서로 다를까?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섯 회사의 「최근 분기」는 같은 석 달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의 3분기는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마이크론은 회계연도가 달라 5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가 회계 4분기입니다. 엔비디아는 4월 27일부터 7월 26일까지가 2027 회계연도 2분기입니다. 엔비디아의 숫자는 삼성전자보다 두 달가량 앞선 기간의 성적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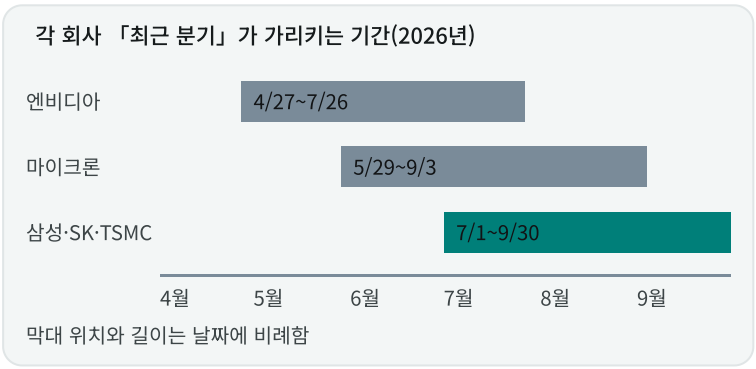


그림 6. 각 회사가 발표한 최근 분기의 기간. 엔비디아는 7월 26일에 끝난 분기라 나머지 회사와 겹치는 기간이 짧음.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지금처럼 분기마다 매출이 두 자릿수로 늘어나는 시기에는 두 달 차이가 숫자를 꽤 바꿉니다. 엔비디아 스스로 다음 분기(8~10월) 매출을 1,080억 달러 ±2%로 전망했는데, 이는 이번 분기 962.21억 달러보다 12.2% 많은 수준입니다(직접 계산, 중국 데이터센터 컴퓨트 매출 제외 기준). 이 분기의 실제 실적은 2026년 11월 17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회사 간 비교는 같은 달력 위에 놓고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뒤처져 보인다면 그것은 성적이 아니라 시험 날짜가 달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06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순이익이 줄어든 회사는 왜 그럴까?

영업이익은 본업에서 번 돈이고, 순이익은 여기에 투자 손익, 이자, 세금까지 반영한 최종 이익입니다. 순이익에는 한 번 생기고 마는 일회성 항목이 끼어들기 쉽습니다.

SK하이닉스가 좋은 예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83.3338조 원으로 전 분기보다 38% 늘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39.7756조 원으로 전 분기보다 58% 줄었습니다. 본업이 나빠진 것이 아닙니다. 전 분기 순이익 93.9226조 원에 키옥시아 관련 이익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회사 경영실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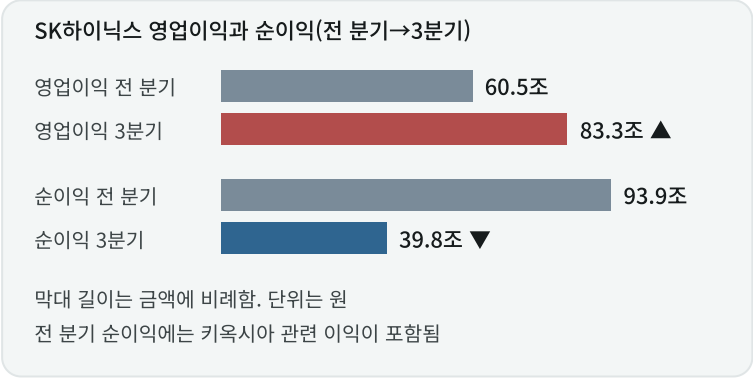


그림 7. SK하이닉스의 전 분기와 2026년 3분기 영업이익·순이익(K-IFRS 연결 잠정, 외부감사 검토 전). 영업이익은 38% 늘고 순이익은 58% 줄었음.

엔비디아도 비슷한 항목이 있습니다. 순이익 596.88억 달러에는 보유한 지분 증권의 평가이익 77.71억 달러가 들어 있습니다. 순이익의 13.0%입니다(직접 계산). 주식 가격이 올라 장부상 늘어난 이익이어서 칩을 팔아 번 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발표문에 순이익을 적지 않았고, 이 글은 확인되지 않은 보도 값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회사끼리 비교할 때는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덜 흔들리는 잣대입니다. 순이익이 갑자기 뛰거나 꺼졌다면 일회성 항목부터 찾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07

이익이 이렇게 큰데 PER이 낮으면 싼 주식일까?

PER(주가수익비율)은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익이 커지면 PER은 낮아지고 주식이 싸 보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크게 출렁이는 업종에서는 이 숫자가 거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가상의 회사 H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H의 주가는 계산을 쉽게 하려고 10,000원에 고정합니다. 불황일 때 EPS가 200원이면 PER은 50배입니다. 평년에 800원이면 12.5배, 호황에 2,000원이면 5배입니다. 주가는 그대로인데 이익이 가장 많은 해에 가장 싸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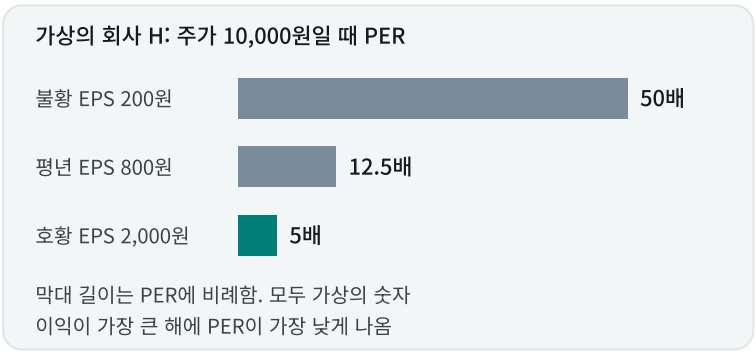


그림 8. 가상 예시. 같은 주가라도 어느 해의 이익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PER이 50배에서 5배까지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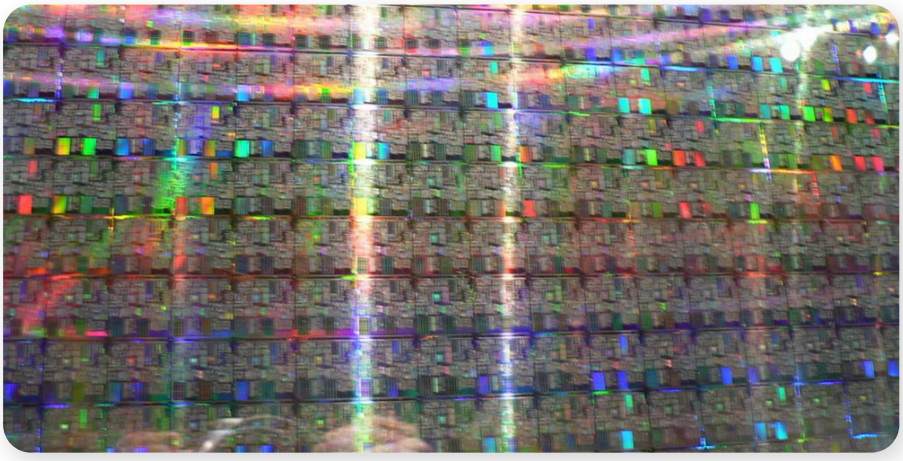


사진: 무지갯빛으로 반사되는 웨이퍼 표면의 칩 격자, naotakem, Flickr.

이 이야기가 왜 지금 필요할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은 1년 사이 32.3%에서 80.7%로 바뀌었습니다. 메모리 업종의 이익은 그만큼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금의 이익으로 계산한 PER은 「이 이익이 이어진다」는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회사들은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 14곳과 맺은 장기계약이 2027~2028년 생산능력의 50% 이상이며 메모리 공급이 2030년까지 수요에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고, 삼성전자도 2027년 AI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회사의 전망이지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적과 주가도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2026년 10월 29일에 4.13% 내려 마감했습니다. [확인 필요] 이유는 이 글의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낮은 PER은 답이 아니라 「이 이익은 평년인가, 정점인가」라는 질문의 시작입니다.

08

회사들은 다음 분기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회사가 직접 내놓은 다음 분기 전망(가이던스)을 보겠습니다. 가이던스는 회사가 스스로 밝힌 예상치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TSMC는 4분기 매출을 523억~543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중간값 533억 달러는 3분기 467.2억 달러보다 14.1% 많습니다(직접 계산). 영업이익률은 56.5~58.5%로 3분기 58.7%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봤습니다. 마이크론은 다음 분기 매출을 615억 달러 ±15억 달러로 제시했고, 이는 이번 분기 542.29억 달러보다 13.4% 많습니다(직접 계산). 엔비디아는 앞에서 본 대로 12.2%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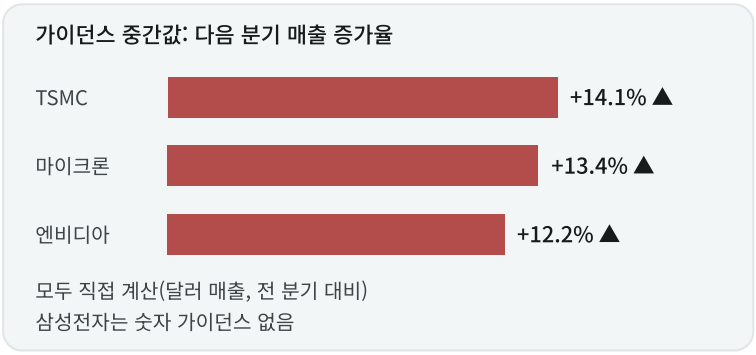


그림 9. 각 회사가 제시한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 중간값을 직전 분기 실제 매출과 비교한 증가율(직접 계산). 회사의 예상치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음.

삼성전자는 숫자 가이던스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4분기에 AI 수요가 이어지고 서버용 SSD와 DRAM 판매가 늘 것으로 기대하며, 파운드리는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에 HBM4가 HBM3E를 출하량과 매출에서 넘어 주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처럼 숫자를 주는 회사와 방향만 말하는 회사가 나뉩니다. 숫자가 있는 쪽은 다음 실적 발표 때 「회사가 한 말과 맞았는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9

실적 비교 기사를 볼 때 던질 다섯 가지 질문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섯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상 최대」라는 제목을 볼 때 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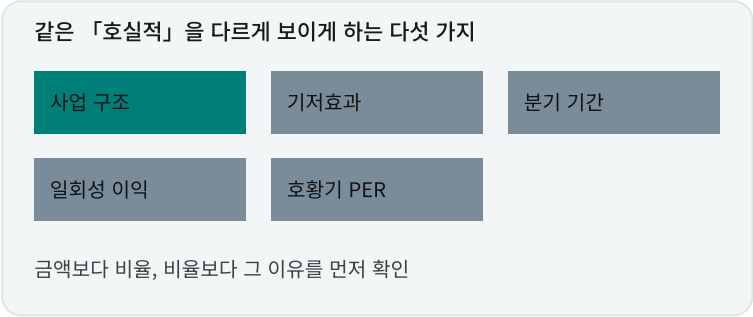


그림 10. 이 글에서 다룬 다섯 가지 차이의 원인.

1. **"이 이익은 회사의 어느 사업에서 나왔는가?"**
   → 삼성전자 영업이익 107.4조 원의 99.2%는 DS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전사 이익률 55.0%와 DS 이익률 72.4%는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2. **"증가율이 큰 것은 지금 잘 벌어서인가, 1년 전에 못 벌어서인가?"**
   → 둘 다입니다. 마이크론은 1년 전 영업이익률이 32.3%였고 엔비디아는 60.8%(직접 계산)였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면 증가율도 달라집니다.

3. **"비교하는 분기가 같은 기간인가?"**
   →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최근 분기는 7월 26일에, 삼성전자는 9월에 끝났습니다. 엔비디아의 8~10월 실적은 11월 17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4. **"순이익에 한 번뿐인 이익이 섞여 있는가?"**
   → SK하이닉스는 전 분기 순이익에 키옥시아 관련 이익이 있어 이번 분기 순이익이 58% 줄어 보였습니다. 본업은 영업이익으로 보는 편이 덜 흔들립니다.

5. **"지금 이익으로 계산한 PER을 믿어도 되는가?"**
   → 이익이 출렁이는 업종에서는 이익이 가장 클 때 PER이 가장 낮게 나옵니다(가상의 회사 H). 이 이익이 평년 수준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처럼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을 다른 네 회사와 비교하면, 다른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숫자가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무엇을 파는지, 어디서 출발했는지, 언제까지의 성적인지가 회사마다 다릅니다. 오늘은 관심 있는 회사 하나를 골라 최근 분기의 영업이익률과 1년 전 영업이익률을 나란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담당자 검토]

참고 자료

- 삼성전자 2026년 3분기 실적 보도자료(2026.10.29, 연결 기준): 매출, 영업이익, 부문별 실적, 4분기 전망. 영업이익률 55.0%, DS 영업이익률 72.4%, DS 비중 99.2%, DX 매출 51.6조 원, 부문 매출 합 206.7조 원은 직접 계산
- 삼성전자 영업이익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783.1%, 전 분기 대비 +20%)과 발표 당일 주가 4.13% 하락(CNBC)은 회사 발표문이 아닌 보도 값 [확인 필요]
- SK하이닉스 2026년 3분기 경영실적(2026.10.28, K-IFRS 연결 잠정, 외부감사 검토 전):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 장기계약과 수급 전망
- TSMC 2026년 3분기 실적 6-K(2026.10.15, 7~9월): 영업이익률, 증가율, 4분기 가이던스. 다음 분기 매출 증가율 14.1%는 가이던스 중간값 533억 달러 기준 직접 계산
- 마이크론 2026 회계연도 4분기 실적 8-K(2026.9.30, 5/29~9/3, GAAP):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가이던스. 영업이익 증가율 1,097.3%와 다음 분기 매출 증가율 13.4%는 직접 계산
- 엔비디아 2027 회계연도 2분기 실적 8-K(2026.8.26, 4/27~7/26, GAAP):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지분 증권 평가이익, 3분기 가이던스와 실적 발표 예정일. 영업이익률 66.2%, 1년 전 영업이익률 60.8%, 평가이익 비중 13.0%, 다음 분기 매출 증가율 12.2%는 직접 계산
- 회사 H와 그 주가·EPS·PER은 설명용 가상 예시이며 실제 기업 자료가 아님. PER = 주가 ÷ EPS로 계산함
- 메모리·파운드리·기저효과·PER에 대한 설명은 일반 개념 설명이며 특정 회사의 전망이 아님

분류·태그 기업 실적 분석 #SK하이닉스 #TSMC #마이크론 #반도체 #삼성전자 #엔비디아 #영업이익률

온라인 원문: https://www.stock-diary.kr/p/2026-11-15-samsung-q3-2026-fable.html

AI 활용 안내 이 리포트는 AI(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자가 검토했습니다. AI가 만든 문장과 숫자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숫자는 「참고 자료」의 원출처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이 문서의 글과 그림은 블로그 운영자가 만든 것으로, 허락 없이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인용한 외부 자료와 사진의 저작권은 각 출처에 있으며, 출처는 본문 캡션과 「참고 자료」에 밝혔습니다. [담당자 검토]